



보도자료

2021.12.12.(일)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처 :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구. 청년플랫폼)

담당자 : 홍서운 청년대변인(010-4455-8255)/김기운 상황실장(010-5314-0062)

보호종료아동 · 청년주거 · 국제연대 · 생활경제. 청년 선대위, 외연 확장을 위한 두 번째 인선 발표

- 분야별 인선에 20세 이재원 씨, 37세 임소라 씨, 29세 이대선 씨, 37세 구분기 씨
- 보호종료아동, 주거, 국제연대, 생활경제 등 다양한 청년 정치 분야 세분화
- 그레타 튜베리 만난 청년 · ‘이재명의 눈’ 이 된 청년 등 분야별 청년 추가 인선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청년 선대위)는 오늘(12일) 오전 분야별 인사 및 대표단 5명을 2차 인선으로 발표하였다. 분야별 4명의 인사는 각각 보호종료아동, 주거, 국제연대, 생활경제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당사자들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청년 선대위에 합류하며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한자리에 모였다.

가장 먼저 발표된 이재원(20세)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동 그룹홈 시설에서 살다가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재원 씨는 “매년 아동 양육시설과 아동 그룹홈 등에서 2,50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서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는 LH전세지원이 불가능하고, 자립지원 전담요원도 형식적인 지원조치만 있어 여전히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가족과 공동체가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무력감의 굴레에 쉽게 빠져버리곤 한다”며, “청년 선대위에서 정치가 보호종료아동의 삶에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립과 성장을 돕겠다.”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발표된 임소라(37세)씨는 8년 차 주거 활동가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소라 씨는, “한국에서 집은 소유 중심으로 공급과 관리가 이뤄지면서

집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 며 “안전하게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에 맞는 주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선(29세)씨는 국제인권, 국제연대 활동가로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대선 씨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홍콩 민주화운동가 조슈아 왕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운동을 주도하는 MZ 세대들과 교류, 협력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전 세계는 기후, 인권, 젠더, 양극화 등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다.” 며,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를 통해 한국 청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더 평화롭고, 더 평등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보겠다.” 고 청년 선대위 합류 포부를 밝혔다.

구본기(37세)씨는 생활경제 전문가로, 현재 본인의 이름을 건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청년 선대위 합류를 통해, ‘이재명의 눈’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이재명의 눈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금 당장이라도 구체적 민생현장으로, 아래로, 더 아래로 가서 청년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고 전하겠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선대위의 문턱을 확실하게 낮추겠다” 고 강조했다.

청년 선대위는 이어 대표단 인선도 추가 공개했다. 청년 정치 및 정책 분야를 이끌어갈 인사로 강수훈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책실장을 임명하였다.

이동학 청년 선대위 인사영입단장은 “각 분야의 누적된 역량을 가진 분들로,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줄 인사들을 청년 선대위에 합류시켜, 다채로운 목소리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며, 앞으로도 2~3차례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전문 및 사진(별도제공)**

[이동학 청년 선대위 인사영입단장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인사영입단장 이동학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 발족 이후 두 번째 인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합류하여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의 변화를 만들어갈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시설에서 살다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이재원님, 주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주거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 임소라님, 청년들의 국제연대를 위해 노력 중이신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대표이사 이대선님, 생활경제 연구와 실천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구분기님, 이상 4분을 청년 선대위 분야별 인사로 영입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를 이끌어갈 인사도 발표합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책실장을 지낸 37세 강수훈님이 합류해주셨습니다. 강수훈님은 정책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열정적인 청년 당원입니다.

이번 발표 또한 지난 1차 인선과 마찬가지로 외부 영입보다는 해당 분야에 누적된 경험이 있거나 문제인식이 분명한 당내 청년을 찾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야별 인선 4인 기자회견문]

○ (보호종료아동) 이재원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생 / 20세

- 메시지 :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동그룹홈 시설에서 살다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입니다.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새로 생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10대의 대부분을 보냈고 작년 이맘때 홀로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에서 2500여명의 아동이 보호종료 후 사회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에서 만18세 1인 가구로 전락한 우리에게 거친 세상을 혼자서 견뎌내는 일은 매우 힘겹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정책이 완벽하고 또 충분한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LH전세지원, 자립지원전담요원의 형식적인 지원조치가 대표적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완전한 자립과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사례관리와 정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담당 인력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내 주변에는 가족과 공동체가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무력감의 굴레 속에 쉽게 빠져버리는 문제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에서 함께하며 정치가 보호종료아동의 삶에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모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 (주거) 임소라 : (사)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 / 37세

- 메시지 : 올해로 8년차, 주거 활동가 임소라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현재 전셋집에 거주중이며,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거 안정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 당사자들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협동조합에서 주거활동을 시작하여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현장에서 주로 청년세대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듣고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최고치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한다고 무리

해서 산 집은 이자 내기 바쁘고 전세로 입주한 집은 알고 봤더니 깡통 전세여서 선택하라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 집을 경매로 사라는데 집주인의 세금까지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은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 열악한 환경, 위험이라는 선택지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집은 소유 중심으로 공급과 관리가 이뤄지면서 집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그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권한이 보장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매우 미비합니다. 특히, 지금의 청년세대는 임대주택에 살 가능성이 크지만, 권한과 참여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잘 알려주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안된다. 청년들 청소(또는 주택 관리) 안한다.’와같은 비난이 먼저 앞서서는 안됩니다. 지금 청년세대의 주거 정책 수요는 어떻게될까? 라고했을 때 저는 가심비, 가치 소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안전하게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에 맞는 주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제연대) 이대선 : (사) 청년김대중 대표이사 / 29세

- 메시지 : 저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운동을 주도하는 MZ 세대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국제 인권활동가입니다. 저는 그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홍콩 민주화운동가 조슈아 웡, 그리고 태국, 미얀마, 벨라루스 등의 민주화운동가들과 연대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 인권, 젠더, 양극화 등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해있습니다. 이런 아젠다들은 더 이상 기성세대, 기성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물결이 이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세대의 주역들이 존재했습니다. 90년대생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벌써 두 명이나 배출되었고, 조슈아 웡은 불과 16세의 나이에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으며, 그레타 툰베리 역시 16세에 석탄 소비에 반대하며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더 평화롭고, 더 평등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생활경제) 구분기 : 구분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 37세

- 메시지 :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에서의 제 직책명은 '이재명의눈'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 선거 캠프의 직책 이름에 후보 이름을 넣은 건 이번이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입니다. 저는 여당 대선 후보의 상징 권력 등을 아래로 아래로 내려 나누겠습니다. 구체적 민생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문제의 개선 방안들을 정리하여 후보와 캠프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꺾다 놓은 보릿자루로 만드는 인재 영입 쇼는 그만 합시다.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일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의 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선대위의 문턱을 부수겠습니다.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jmeyes입니다. 선대위에 하고 싶은 말들, 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응답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차 발표 인선 사진]

				
<p>청년 선대위 대표단 대변인</p> <p>강수훈 (38, 전 광주광역시당 정책실장)</p>	<p>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p> <p>이재원 (20,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p>	<p>국제연대</p> <p>이대선 (29, (사)청년김대중 대표이사)</p>	<p>청년주거</p> <p>임소라 (37, (사)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 위원장)</p>	<p>생활경제</p> <p>구본기 (37,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p>